

양돈장의 소독 실태와 효과적인 소독방법



이 오 형 팀장
(대상농장 축산기술센터)

양돈장에서 기본관리는 사료 주는일과 돈분 제거하는 일을 생각할 것이다. 이 두가지의 한가지를 첨가한다면 바로 소독이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사료공급과 돈분작업은 하듯 소독 역시 기본관리로 생각하고 일을 해야한다.

양돈장의 소독은 크게 두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외적인 소독과 둘째로는 내적인 소독으로 생각 할수 있다. 외적인 소독은 돈사주변 위주의 소독을 말하며 내적인 소독은 돈사내 소독을 말 할수 있다.

1. 외적인 소독

가)농장 정문 차단

농장 정문은 항상 질병이 들어오는 길목임을 명심하고 차단방역에 신경을 써야 한다.

정문소독 장비 및 시설 : 분무소독용 소독시설, 손소독용 소독수, 방역복, 장화

인원 : 질병 전파의 가장 위험한 요소중의 하나로 농장 출입 통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 부득이 출입시에는 방역복과 장화를 착용·소독을 실시한 후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차량 : 사료차 및 도매차, 출하차를 제외하고는 일체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시에는 반드시 소독을 실시한 후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소독약제는 4급 암모늄제제나 CLO2제제를 100배정도 희석하여 살포해 주며 희석은 매일 실시 한다. 희석수가 1일이 넘지 않도록 한다.

나)돈사 주변 소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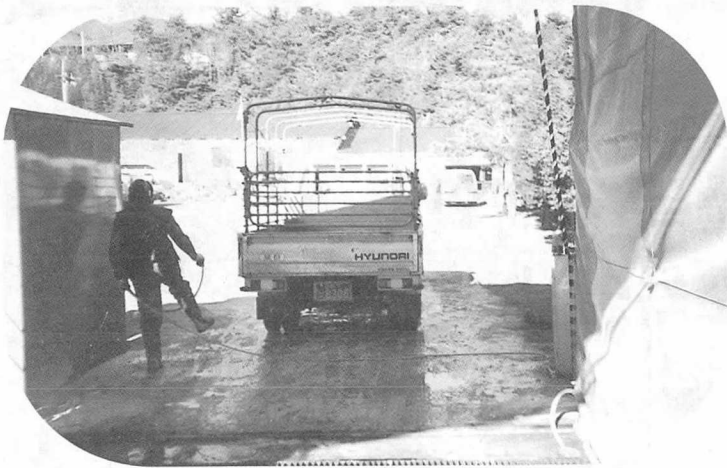
돈사 주변은 1일 1회 소독을 실시 하면서 하절기에는 각종 해충을 구제하는 소독을 추가해 준다.

파리와 모기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1주일에 1회씩 소독을 실시하여 파리·모기로 인한 질병 전파를 차단해 주어야 한다. 또한 돈분장이나 웅덩이는 철저히 관리를 하여 파리, 모기 발생근원을 제거해 준다. 돈분장은 살충제를 살포하여 파리 구더기 발생을 억제해 주고 웅덩이에 고인 물을 제거 하거나 비닐로 덮어서 모기 유충발생지를 없앤다.

다) 음수 소독

음수소독은 물탱크가 별도로 있는 농장에서는 소독약을 넣어서 소독을 실시한 후 급수해 준다. 약제로는 고체로 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소독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돈사내 물탱크는 분기에 1회씩 소독을 실시하여 신선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준다.



◀농장 정문은 항상 질병이 들어오는 길목임을 명심하고 차단방역에 신경을 써야 한다.

2. 내적인 소독

가)돈사내 소독

돈사내 소독은 1일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살포 방법으로는 분문소독을 실시해 준다. 약제로는 4급 암모늄제제, CLO2제제를 살포 해주며 100배 희석하여 살포한다.

살포 시간은 오후 2시경에 살포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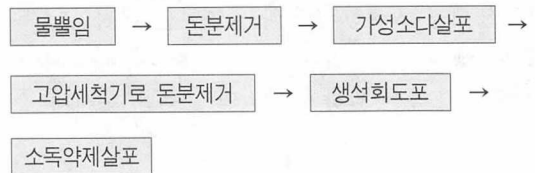
나)빈돈사 소독

빈돈사 소독은 매우 중요한 소독이다. 상재하고 있는 질병을 줄일 수 있는 한가지 방법으로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실시하면 질병의 발생 빈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돼지를 출하하고 나면 먼저 물을 살포한 다음 한나절 후 고형분을 제거한 후 가성소다 2%용액을 살포한다. 가성소다의 살포는 두 가지가 목적이 쉽다. 첫째는 소독 목적이다. 이는 바이러스성 질병의 소독 효과가 우수하기 때문이며 둘째는 돈분의 고형분을 제거하는데 쉽게 제거가 되기 때문이다. 가성소다를 살포한 후 한나절 후에 고압세척기로 세척을 실시한후 건조 시킨다. 완전 건조되면 생석회를 도포한다. 생석회를 도포한

후 1일 경과후에 4급암모늄제제나 CLO2제제의 소독약으로 100배 희석하여 살포한 후 입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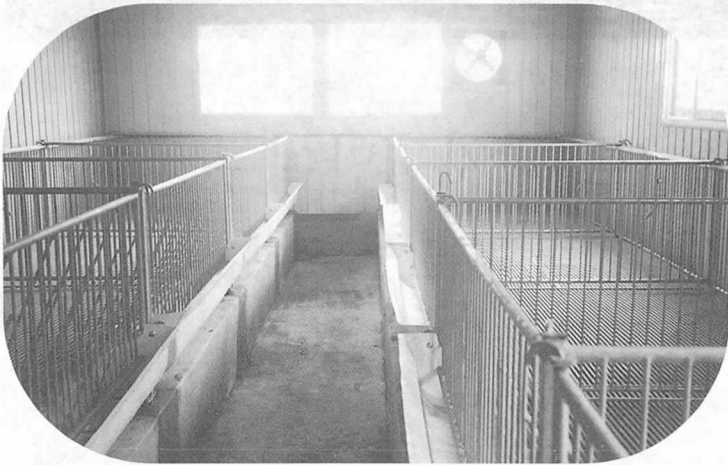
〈그림1〉 소독 순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인, 올 아웃 방법이 질병 발생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육 규모로는 올인, 올 아웃 방법이 어려운 농가가 많다. 올인, 올 아웃이 어려우면 돈방 단위로 소독을 실시해야만 조금이나마 질병을 줄일 수 있으므로 소독을 해주어야 한다. 돼지가 출하되고 나면 반드시 돈방 단위로 수세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다)분만사 소독

분만사 소독은 가장 신경을 써서 수세 및 소독을 해야할 곳이다. 어린 자돈이 태어나고 가장 연약한 자돈이 사육되므로 사고도 가장 많이 나는 곳이므로 청결이 유지되지 않으면 설사가 발



◀빈돈사 소독은 매우 중요한 소독이다. 이는 상재하고 있는 질병을 상당히 감소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

생되어 위축되거나 폐사되어 생산성 저하의 원인이 되므로 청결을 유지하면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빈돈방 소독은 위 빈돈사 소독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고 한가지 추가하여 실시해 준다. 그 한가지는 화염소독이다. 수세소독이 완전히 끝난 후 화염 방사기로 돈방 구석구석을 소독하여 잔존하고 있는 병원균을 사멸할 수 있다. 화염 방사시 주의할 점은 화재발생이 없도록 해야 하며 한곳에 오랜시간 할 필요는 없다.

특히 분만사에서 설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농장에서는 위 방법을 적용할 경우 설사 발생 빈도가 눈에 띄게 달라질 것이다.

라) 혼증소독

위의 방법으로 소독을 실시한다 해도 청정이나 기타 구석진곳은 소독할 방법이 없으므로 혼증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혼증소독으로는 포르말린 제제가 시판되는 것이 있으므로 구입하여 사용하면 편리할 것이다.

마) 돈체소독

임신사에서 분만사로 이동시 반드시 돈체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임신사에서 100여일 동안 한곳에 있었으므로 돈분과 각종 미생물이 돈체에 묻어있는 상태이므로 깨끗하게 세척해 주지 않으면 분만사에서 자돈에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세척 방법으로 물에 비누 성분이 있는 소독제를 희석하여 브뤼쉬로 돈체의 돈분을 완전히 제거해 준다.

피부병 예방을 위해서 피부병 약제로 돈체에 분무한 후 입식을 한다.

바) 톱밥소독

분만사가 평사인 경우 톱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톱밥을 소독한 후 돈방에 넣어 주면 돈방 소독 효과를 높여 줌으로 자돈의 설사 예방에 효과적이다.

소독 방법으로는 소독수를 톱밥에 부어서 혼합하는 방법으로 톱밥과 완전 섞은 후 투입하면 된다. **養豚**

